

순천만, 南道 대표 관광 명소로

세계적인 연안 습지로 평가받고 있는 순천만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대폭 증가하는 등 순천만이 지역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

순천시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순천만을 방문한 관광객은 62만9천 8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7만7천400여명 보다 67% 가량 증가했다.

외국인 관광객도 1천440명이 방문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290명보다 12% 늘었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2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순천만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객이 대폭 늘어나면서 순천 시내 일부 식당의 예약률이 2~3년 전에 비해 평균 50%, 주말 200% 이상 증가하는 등 순천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순천시는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탐방열차와 2층버스를 오는 9월께 운행하고, 현재 15~35인승 규모의 탐조선 5대를 35~40인승 규모의 생태체험선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또 전국 최초로 갯벌 문화재(명승제 41호)로 지정된 순천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시키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오는 11월께 개최된다.

2천640만여 m 규모의 순천만에는 25만 여 m의 갈대밭이 있고, 200여 종의 조류와 120여 종의 염생(鹽生) 식물, 멸종위기 조류 12종이 서식하고 있다.



세계적 연안 습지인 순천만이 최근 명승 41호로 지정된 가운데 이곳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나 올 연말이면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첫 갯벌 문화재 지정...관광객 작년보다 67% 늘어

탐방열차·2층버스 9월께 운행...세계자연유산 등록 추진

식물, 멸종위기 조류 12종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천연기념물 228호인 흑두루미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서식하고 있으며 인공적으로 철새들이

먹이를 주는 일본 이즈미시 습지와 달리 이삭과 벌레 등 자연 먹이감이 널려 있는 천혜의 습지로 꼽히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이 경남 창녕 우포늪과 창원 주남저수지와 함께 올해 10월 열리는 탐사르총회 공식 방문지로 확정되는 등 국제적인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며 "소중한 생태자원인 순천만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동호기자 dhkim@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민선 4기 2년 결산

■노 관 규 순천시장

“생태수도 만드는데 전력 다할 것”

“지난 2년간 10년후, 100년후의 모습을 생각하며 새로운 순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또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과 친환경적인 생태 여건을 만드는 데 큰 힘을 쏟았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민선 4기 취임직후부터 흐트러진 지역의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시장과 전 직원이 하나가 돼 클린 시정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해 왔다.

특히 최첨단 미래형 신도시가 탄생하게 될 신대지구 배후단지 조성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점과, 포스코 마그네슘 판매공장과 3개의 클러스터를 유치 등 친환경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히고 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지난 2년간 꾸준히 추진돼 왔다.

녹색 웰빙도로 조성 및 3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과 해룡산단 2단



순천만 갯벌 생태관 건립 국제 생태 정원박람회 추진 판매공장·클러스터 유치 성과

계 조성도 친환경 기업 유치할 계획이다.

또 순천만 갯벌 생태관을 엑스포 이전에 건립하고, 국제 생태 정원 박람회도 개최하며 동천변에

최고의 휴식공간이 될 장대생태공원이 들어선다.

이밖에도 전국 평생학습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될 시민교육문화공간도 고품격의 학습 환경으로 만들고, 조례 호수 도서관 건립, 교육특성화를 위한 특수목적고 유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시청사 건립문제와 광양만권 통합, 소송으로 인해 중단되고 있는 환경센터 조성 사업 등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노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순천을 생태수도로 만드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화물 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순천~광양 도로 확장 공사도 친환경적인 기법을 도입해 생태수도 위상에 걸맞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시장은 “도시 품격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여수 부실 관급공사 뿌리 뽑는다

설계부터 하자까지 체계적 관리 'OK시스템' 구축

여수시가 설계단계부터 준공후 하자관리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서울 영등포구청이 지난 2006년 개발한 것으로 여수시는

지난해 이를 벤치마킹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받아 올해 특수시책에 반영했다.

여수시는 지난 5월 전산장비 서버 구입비 등 5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공사감독 공무원과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시

연회 개최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또 품질관리 OK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도 제정했다.

이 시스템은 공사현장에 웹카메라를 설치해 컴퓨터 모니터로 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수시 출장 감독이 어려운 도서지역 건설공사의 부실을 예방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스템은 전남 최초로 여수시가 도입한 것으로 3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구례 “국제 결혼하면 300만원 지원”

구례군이 관내 총각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할 경우 300만원을 지급한다.

구례군은 내년부터 결혼 경험이 없는 만 35세 이상 남자가 국제결혼을 할 경우 지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을 받을 사람은 결혼신고 후 90일 이상 배우자와 함께 구례군에 거주해야 하며, 신청후 14일내에 지

급된다.

국제결혼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경우는 구례군이 광주·전남에서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16개 기초자치단체가 지급하고 있다.

구례군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김동호기자 dhkim@

光州日報 동부취재본부	
(061-908-8111)	
본 부 장	김동호
	지광현 차장보장
고 흥 주 재	주각중 부국장
여 수 주 재	박양규 부장
순 천 주 재	김진수 차장
광 양 주 재	김춘호 차장

고흥에 군용기 전시공원

F-86 D 전투기 등 퇴역 공군기 3대 전시

우주항공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고흥군이 공군의 주력기종으로 활약하다 퇴역한 군용항공기 전시공원을 조성했다.

고흥군은 공군의 협조를 얻어 종합문화회관과 고흥만방조제 2개소에 F-4D 팬텀전투기, F-86D 전투기(사진), T-37C 훈련기 3대를 전시하고 있다.

종합문화회관에 전시된 F-4D 팬텀전투기는 1969년도에 18대가 도입돼 30여년간 영공 수호의 임무를 수행해 왔다.

고흥만 공원부지 내에 동지를 둔 F-86D 전투기는



1960년부터 도입된 공군 최초의 요격기로 1971년까지 운영됐다.

또 T-37C 훈련기는 1973년에 도입돼 4천여 명의 조종사를 양성하고 2004년 퇴역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고흥군 3자녀 이상에 '가족 우대증'

고흥군이 저출산 해소 대책 일환으로 최근 3자녀 이상 다자녀 1천500여 세대에 자연 휴양림시설이나 수영장

이용시 50%가 감면되는 '다자녀 가족우대증'을 발부했다. 고흥군은 지난해부터 두 번째 자녀

출산시 월 10만원씩 12개월, 셋째 자녀 출산시 월 20만원씩 24개월 동안 지원하고 있다.

또 조음과 검사비용 2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생아 용품도 지급된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별교에 주공 아파트 공급

2012년까지 400세대 규모

별교에 대규모 주택공사 임대아파트가 공급된다.

오는 2012년까지 완공될 주택공사 별교 임대아파트는 350~400세대 규모로 재해위험지구인 별교읍 세량, 부용, 흥교마을 주민 140여 가구 이주민들에게 우선 제공된다.

임대아파트 유치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2012년 별교 지방산단 준공으로 늘어나게 될 주택 수요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보성군은 별교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불량·노후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을 추진해 왔다. /동부취재본부=지광현기자 light64@

동양의 허방이 HAINAN

무안 ↔ 하이난(심야)직항

매주 수,목 7회 한방 ₩899,000~
7/26, 7/30, 8/02, 8/06, 8/09, 8/13, 8/16출발

무안 ↔ 장사(장가게)직항

매주 일,목 8회 한방 ₩749,000~
7/24, 7/27, 7/31, 8/03, 8/07, 8/10, 8/14, 8/17출발

중국 최대 항공사, **징가게**

www.hainanair.com

문의: 02-225-11070

www.hainanair.com